

# 사회정치적생명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생명

## 윤 옥 금

사람의 고유한 생명인 사회정치적생명의 귀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것은 혁명적인 인생관을 확립하는데서 기초적인 문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생명입니다. 생명가운데서도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1권 379페이지)

인간에게는 두가지 생명 다시말하여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이 있다. 육체적생명도 귀중하며 사회정치적생명도 귀중하다. 그러나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생명은 사회정치적생명이다.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한 생명으로 되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정치적생명이 사회적인간으로서 자기의 본성에 맞게 살며 발전할수 있게 하는 생명으로 되기때문이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 사람답게 산다는것은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값높은 삶을 누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육체적생명의 요구를 아무리 충족시킨다고 해도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지 못하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닐수 없으며 값높은 삶을 누릴수 없다. 오직 사회정치적생명만이 인간으로서의 삶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귀중한 생명으로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이 인간의 가장 귀중한 생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이게 하기때문이다.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을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존엄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자주적권리를 행사하는것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것도 존엄이 있기때문이며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것도 존엄이 있기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존엄을 잃게 되면 육체적생명은 살아있어도 사회적으로 죽은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은 존엄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고수해나가려고 한다.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사람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게 될 때 철저히 고수되고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이 인간의 존엄을 고수하고 빛내이게 하는것은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장 옹바로 행사하게 하는것과 관련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어떻게 지니고 빛내이는가 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어떤 높이에서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할수 있다.

인간의 존엄은 사회적관계속에서 다시말하여 사람들간의 호상관계에서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육체적생명의 요구만을 우선시하고 절대시하는 사람은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없다. 더우기 외적인 강요에 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응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남의 품에 놀아나면서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며 지어 규탄과 버림을 받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장 옳바로 행사하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의 본질을 이루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바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가장 과학적인 사상으로 인간 존엄을 빛내이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인것과 관련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녔다는것은 곧 자주성,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지녔다는것이며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옳바로 행사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닐 때만이 사회적인간의 자주적본성에 맞게 권리를 행사해나갈수 있으며 자기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이면서 살아갈수 있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이 가장 귀중한 생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값있는 삶을 창조해나가게 한다는데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한생을 살아가지만 그 한생을 걸어온 삶은 사람마다 같지 않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속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누린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사랑과 존경도 받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산 사람도 있으며 사람들의 저주와 규탄속에 치욕의 한생을 산 사람도 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속에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려는것이 인간의 본성적념원이지만 사람들의 삶이 서로 다르게 되는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 다른 사상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본요인이 있다.

사회정치적생명의 본질을 이루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 가장 값있는 삶을 창조하게 한다.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집단주의본성에 맞게 사회와 집단을 위한 생을 살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랑과 정으로 결합되게 하는것과 관련된다.

인간의 삶의 과정이란 집단속에서 사람들호상간에 사랑과 정을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집단을 위하여 기여하는것이 없다면 집단으로부터 그 어떤 사랑과 정을 주고 받을수 없으며 이러한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그 어떤 가치문제를 론할수 없다.

인간의 삶이 가치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집단을 위하여 기여하는것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말하여 집단과 정을 주고받는 삶인가 아닌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혼자 물질적향락과 육체적인 쾌락을 누린다고 하여도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것은 아니며 무위도식하며 오래 산다고 하여 누구나 그에게 정을 주게 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적집단속에서 살며 발전하는 사람은 그 본성으로부터 집단속에서 사랑과 정을 주고받을 때에만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며 생활에서 보다 큰 사랑과 정을 느낄수록 보다 가치있는 삶을 누린다고 말할수 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그저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만족하지 않으며 보다 값있는 삶을 위하여 투쟁하게 되며 한생에 더 많은 사랑과 정을 주고받을것을 요구하게 된다.

사회적집단에서 사람들이 집단을 위하여 기여한다는것은 집단에 사랑과 정을 준다는것이며 집단으로부터 믿음을 받는다는것은 사랑과 정을 받는다는것이다. 집단을 위하여

기여하는 몫이 클수록 집단으로부터 보다 큰 사랑과 정을 받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은 그 근본요구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생명의 모체인 사회적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함으로써 집단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과 정을 받는 삶, 가장 값있는 삶을 창조하고 향유하도록 한다.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지 못하게 되면 모든 생활을 개인주의적관점에서 출발하게 되며 사람들로부터, 집단으로부터 그 어떤 사랑과 정도 받지 못하며 결국 값있는 인간생활에 대하여 맛볼수 없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고 값있는 삶을 창조하게 하며 자기의 한생이 끝난 다음에도 집단으로부터 사랑과 정을 계속 받게 되는 가장 행복한 삶을 담보하게 한다.

사회정치적생명이 가장 귀중한 생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인간으로서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발전하게 한다는데 있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힘있는 존재로 되는것은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어 사는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하나의 사상과 중심에 기초한 사회적결합을 더욱 강화해나갈수록 사람은 보다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 되게 된다.

사람이 가장 발전된 존재로, 힘있는 존재로 되는 유일한 길은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는 길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닌다는것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과 전사, 전사들호상간에 도덕의리적으로 결합된다는것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민대중의 사회적결합은 가장 완성된 사회적결합으로 된다. 그것은 이러한 결합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적, 조직적결합인 동시에 수령과 전사, 전사들호상간에 이루어지는 가장 고상한 인간관계인 도덕의리적관계에 기초한 결합이기때문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조직사상적, 도덕의리적결합보다 더 공고한 사회적결합이 있을수 없는것만큼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적집단은 가장 위력한 집단으로, 집단의 성원들은 가장 힘있고 발전된 존재로 되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이와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도덕적품모를 더욱 원만히 갖추어나가게 한다.

자기자신을 더욱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사람이 내세우는 중요한 자주적요구이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로 발전해나간다는것은 높은 정신도덕적품모를 갖추어나간다는것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풍부한 과학기술지식, 높은 문화적소양과 건전한 도덕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갖추어야 사람은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

사람은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건전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도 원만히 갖추어나가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로서의 사회정치적집단이 출현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일정하게 사회와 집단을 이루고 살았으며 그 과정에 선진적인 사상과 문화도 창조하고 체현하여왔다.

그러나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에게 필수적인 건전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는 선진적인 사회정치적집단에 소속되어 생활하는 과정속에서만 옳바로 체현될수 있다.

사람들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지 못한 조건에서는 결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창조적능력, 건전한 문화를 보다 풍부하게 소유하려는 요구가 참답게 실현될수 없다.

사람들은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정치적집단과 결합되어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살아야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풍부한 과학기술지식, 건전한 도덕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체득하고 키워나갈수 있다.

결국 사람들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사는것은 사회적인간의 품모를 원만히 갖추면서 자신의 정치사상적, 문화도덕적발전을 끊임없이 이룩해나가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된다.

이처럼 사회정치적생명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존엄을 지니고 가장 값 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주는것으로 하여 인간의 가장 귀중한 생명으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못난 자식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천만자식모두를 차별없이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속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이 세상 그 어느 인민도 누릴수 없는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참다운 인생관을 지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귀중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